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8월 14일(금)
(음력 7월 2일)
Пятница
14 августа 2026 г.
№ 32 (1219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펼쳐진 광복절 기념행사의 한 장면.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광 복 절 을 축 하 합 니 다 !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오는 8월 15일은 한반도의 광복 기념일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사할린한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45년 얄타회담의 결의에 따라 소련이 나치 독일의 마지막 동맹국이었던 일본 군국주의에 맞선 전쟁에 나서 우리 소련군은 한민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반도에서 식민지군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해방시키고,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전쟁시절 일본 식민지군은 한국인들을 강제로 사할린으로 이주시켰고, 종전 후에도 강제징집된 많은 한인들이 소련의 영토에 남았습니다. 소련은 그들에게 새로운 조국이 되었고, 현재 사할린 지역은 근면하고, 창의적이며, 매일 지역 경제를 비롯해 사회적 분야와 문화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사할린한인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광복절은 우리 공동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업적에 대한 기억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러시아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사할린 땅에서 공동의 노력과 우호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한반도의 광복절을 축하드립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태평양함대 훈련 참관 위해 사할린주 방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12일(수) 이른 아침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했다. 대통령의 사할린 방문 일정은 태평양함대 대규모 훈련 최종단계 참관에 있어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가 공항에서 대통령을 영접했다.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주를 방문한 것은 2013년 7월 이후 13년 만이다. 극동지역 국경 방어를 위한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 개시되어 기동에 수상함·잠수함·지원함 등 약 60척, 항공기·헬기·무인기 약 30대, 그리고 병력 1만3천여 명이 동원됐다. 훈련은 일본해·오호츠크해·태평양 북서부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기함인 미사일 순양함 '와랴그'함에 승선해 해군 군사훈력을 직접 참관했다. 또한 대통령은 동부 국경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3일(목) 푸틴 대통령은 쿠릴열도를 처음 방문한 가운데 이투루프 섬에서 '야스니' 수산 가공 공장, 쿠릴스크 중앙구역병원, 중학교를 시찰했다. 쿠릴스크 시에서 대통령은 주민들과 대화도 나눴다.

또한 이투루프 섬에서 대통령은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회담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사할린지역의 사회경제발전,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 및 그 가족 지원, 그리고 지역 인구 문제였다.

(사할린 주정부 보도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 주지사, 연극학교 건설 현장 점검

보리스 슈킨 연극예술대학 유즈노사할린스크 분교 내 교육용 극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리마렌코 주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극동 지역 최초의 이 분교는 사할린 국립사범대학 부지에 건설되었다. 현재 학생 53명이 수학 중이며, 4학년부터 공개 공연을 의무화하는 본교 기준에 따라 전용무대 건설은 필수다. 공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지난해에 강의실을 완공했고, 현재 체육관을 리모델링 중이다. 극장은 별도의 출입구와 파노라마 형식의 유리창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지사는 기숙사 주변 환경 정비도 지시했다.

햇감자 및 채소 수확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 '숍호즈' 국영농장에서 햇감자 수확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약 2톤의 감자와 400톤의 채소를 조기 수확해 이 작업은 10월까지 계속된다. 올해 수확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증가될 전망이다. 조기 수확은 9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이후 감자와 사료용 비트와 당근을 수확하고, 10월~11월엔 양배추 수확이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 9개 지역에서 온 재연 배우들, 사할린 남부 해방 전투 재현

8일(토)스미르니흐 지역 로시노 마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다스 경찰 초소 공격 장면을 러시아 전역에서 온 재연 배우들이 재현하여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개막식에 참석했다. 81년 전 소련군이 요새를 점령하고 북위 50도선을 돌파했던 이 전투는 매년 '러시아 수색운동'과 함께 재현된다. 재현 행사의 일환으로 야외 박물관에서는 역사 탐방로가 조성돼 일본군 진지 구조와 79소총사단 병사들의 영웅적 활약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으로 장애물 코스 및 수류탄 투척 체험형 강습 행군 활동, 군사적 상징 그리기, 보드게임 등이 진행됐다.

'사할린 스크린'영화제, 사할린한인 관련 영화 상영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회 〈사할린 스크린〉영화제가 열리는 가운데 섬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작품들을 상영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차브리'영화관에서는 26일 18시 30분 사할린 동포 3세의 안톤 도카 감독의 '토박이'다큐멘터리(2025년)가 상영되고, 이 영화가 끝난 후 20시 30분에 최초로 '박노학. 집으로 가는 길' 다큐멘터리(도카 안톤 감독작, 2025년)가 상영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다.

전 러시아 청년포럼 〈오스트로와〉 사할린에서 열려

사할린에서 전 러시아 청년포럼 〈오스트로와〉가 8월10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일주일에 걸친 포럼 기간 동안 청년들은 수요가 높은 직종을 알아보고, 우수 기업들을 방문하며,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기획들을 구상하고 개발할 예정이다.

포럼 개막식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포럼 참가자들에게 〈오스트로와〉행사만 아니라 사할린의 실생활에서 사할린 지역의 가능성을 찾아보길 당부했다.

올해 포럼에 러시아 전역에서 학생, 대학생, 청년 직장인들 350명이 대거 참가했다. 이번 포럼의 참가율은 역대 최고치로 350명 모집에 5,94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17: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가장 많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은 사할린주를 비롯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이며,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7세였다.

〈오스트로와〉 포럼 참가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사할린을 두루 찾아보고, 학업과 취업을 위한 전망 높은 곳으로서 사할린 지역을 평가하며, 고용주들과의 교류의 시간도 갖는다.

러시아 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청년포럼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전한 가운데 〈오스트로와〉는 극동지역에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강조하며 "극동 지역과 전국적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청년포럼에서 공개토론, 원탁토론, 산업 기업체들의 대표들을 비롯해 첨단기술산업, 의료기관, 자연환경 보호활동, 관광산업의 대표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새로운 지식과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견습생으로나 취업에 대한 유망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포럼은 사할린 주민들에게 러시아 극동지역의 우선적 과제를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의미 있고 시기 적절한 개별 및 단체들의 기획의 실현을 위한 훌륭한 시작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할린으로서는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 참가자들에게 사할린 끝자락의 높은 전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문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환영사를 전하며 "친애하는 여러분! 사할린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 이곳에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모였다. 우리는 사할린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꿈을 펼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사할린인 이유를 알려주겠다. 사할린주는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 가장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투자 기획이 시행되고 있고, 투자기획 실현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근로임금 지급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사할린의 석유 및 가스산업, 광산업은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근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계에는 6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는 사할린주의 청년들에게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사실상 절호의 기회이다." 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에게 포럼은 이러한 가능성 탐색의 시작이 되므로 포럼프로그램에 기업방문을 비롯해 스포츠 및 문화시설 방문이 포함되고, 청년들은 지역의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주민들과 만나고, 단순한 겉보기가 아닌 실제로 사할린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포럼은 인공지능 및 IT(정보통신), 에너지, 건설, 공학, 의료, 보건, 서비스, 관광, 항공 및 무인기, 창조경제, 생태학 및 기후, 교육, 애국교육 등 9개의 전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올해 〈오스트로와〉의 특이성은 청년들을 위해 전략기획청이 지역들의 매력도지수를 집계한 것이다. 이에 사할린주는 5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사할린 지역이 참가자들에게는 교류를 위한 단순 행사지로서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지역들 중 하나에 오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전 러시아 청년포럼 〈오스트로와〉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추진으로 사할린주 정부와 로스몰로죠쥐(러시아 청년청)의 후원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청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다.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7' 제작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7' 제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없는 날 등 일상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작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 한국의 명절 및 국경일을 표기하고, 짧은 러시아어 설명을 넣어 3, 4세 동포들도 전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올해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사할린 현지 동포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는 재외동포청의 지원으로 제작하며, 사할린 현지로 보내는 달력은 온라인 모금을 통해서 제작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모금으로 제작을 시작하며, 사할린동포와 한국의 시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이 달력은 동포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새해 선물이 되고 있다.

■ 온라인 모금 참여

1) 카카오 같이가치(~10월 6일까지)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39325/story

2) KIN 모금 계좌 : 우리은행. 1006-301-227783. KIN(지구촌동포연대)

계좌입금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kin2333@gmail.com. **(KIN 제공)**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의 사진작가들, 〈로드늬예〉전 러시아 기획사진전시회에 참가

러시아 포토엑스포가 주최하는 〈로드늬예〉 가족사진 전시회가 8월 7일부터 30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아르테타쥐' 현대미술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기획의 취지는 가족 간 유대 강화 및 각 세대와 일상에서 친밀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데 있다.

사진전람회는 연출된 사진을 비롯해 현대 가족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사진들이 전시된다고 전 러시아 최고의 사진작품상을 수여하는 러시아 포토어워드 조직위원회가 보도를 통해 자세히 전했다.

사진전에 사할린주에서 2명의 사진작가들이 참가했는데 아니와 지역의 인가 모례와는 〈너는 나의 빛〉이란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여 사진 속에 아들 아우렐리가 엄마와 함께 손전등으로 소파 밑을 뒤지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지친 고양이를 찾는 모습을 포착했다. 작가는 손전등이 아이에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사진작가인 구젤 미니카예와의 사진작품도 이번 전시회에 선정되었다. '러시아 포토어워드'가 기획한 '러시아 포토엑스포'의 이번 표어는 〈오프라인으로 나가라!〉이며, 사진작가들이 소셜네트워크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작품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Фотографы из Анив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участник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РОДНЫЕ»

В Центр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ртэтаж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 7 по 30 августа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семейной фотографии «РОДНЫЕ»,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Russian Photo Expo. Проект посвящен силе семейных связей, памяти поколений и повседневной красоте близости.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как постановочные, так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снимки, создающие живой портрет современной семьи.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комитета главн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ремии в области фотографии Russian Photo Awards.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 два фотографа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га Морева из Анивы представила работу «Ты мой свет». На снимке запечатлен мальчик Аврелий, который с помощью фотофонаря вместе с мамой ищет под диваном уставшего от детских забав кот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автор, для ребенка фонарь стал не оборудованием, а любимой игрушкой.

Второй участник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Гузель Миникаев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е работа также отобрана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е.

Russian Photo Expo — проект главн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фотопремии Russian Photo Awards. Девиз проекта — «Выходи в оффлайн!» — призывает авторов показывать свое творчество миру живых людей и живого общения, выходя за пределы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에서 '비스(БИС)'그룹 공연

전 러시아 청년포럼 〈오스트로바〉 폐막식의 일환으로 '비스 (БИС)'팝그룹이 무대에 오르는 가운데 블라드 소콜룹스키와 드미트리 비크바예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민들과 방문객, 포럼 참가자들을 위해 히트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8월15일 19시 가가린 시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열리며 입장은 무료이다.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오스트로바〉청년포럼은 '로스몰로죠쥐(러시아 청년청)'의 지원으로 개최되어 러시아 전역에서 35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든다. 프로그램에는 사업을 위한 교육일정 및 회의, 견학, 취업박람회, 100만 루블리의 장려금이 걸린 경연이 포함되어 있다.

Группа БИС бесплатно выступит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на сцену выйдет группа БИС. Влад Соколовский и Дмитрий Бикбаев исполнят свои хиты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гостей и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Концерт пройдет 15 августа в 19:00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 парке имени Ю. А. Гагарина. Вход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свобод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проведут с 10 по 16 август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смолодежи, где соберутся 350 участник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 программе — деловые сессии, экскурсии, ярмарка вакансий и грантовый конкурс с призовым фондом до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극동연방관구 내 항공편에 닙흐족의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 상영

'오로라'항공사가 사할린주 문화 및 고문서부와 협력으로 무료 만화영화 시스템에서 아동 영상물을 확장했다. '사할린의 동화' 항목에서 '아동' 목록에 러시아어로 애니메이션 2편이 추가되었다고 사할린주 문화 및 고문서부가 전했다.

사할린 만화영화는 노글리키 도서관이 장려금으로 닙흐족의 설화를 만화영화로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북방민족의 민속과 전통을 소개했다.

만화영화 '샤만'은 닙흐족의 대표인 이리나 로브군의 기록된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 날아가는 쥐와 두꺼비〉 만화영화는 지역 문화 및 언어 수호자인 리디야 무부치크가 전하는 고대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만화영화 두 작품의 시각적 형식은 사할린의 유명 화가인 웨로니카 오시포와가 만들었다. 그녀는 러시아 미술연맹의 회원이자 국제영화축제의 수상자로서 독창적인 스케치로 만화영화에 특별한 예술적 가치를 불어넣어 제작했다.

사할린 문화 및 고문서부의 논나 라브릭 장관은 기내에 이러한 만화영화 상영은 중요한 계몽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통해 탑승객들이 극동지역의 독창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На авиарейсах по ДФО будут показывать сахалинские мультфильмы по нивхским сказкам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врора» расширила детский контент в своей бесплатной мультимедийной системе. В разделе «Детям» под общим названием «Сказки Сахалина» появились два новых мультфильм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едомства.

Анимационные ленты создала Ноглик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на средства грантов по мотивам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нивхов. Они знакомят зрителей с фольклором и традициями северного народа. Мультфильм «Шаман» основан на легенде, которую записали со сл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нивхского народа Ирины Ловгун. А в основу картины «Летучая мышь и жаба» легла старинная сказка, которую рассказала хранительница местной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Лидия Мувчик. Визуальный стиль для обеих лент создала известная сахалинская художница Вероника Осипова. Член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и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ей подготовила уникальные эскизы, которые придали мультфильмам особу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ценность.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региона Нонна Лаврик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появление таких мультфильмов на борту — это важны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шаг. Он поможет пассажирам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самобытную культуру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8면에 계속)

'희망' 무용단, 인클루시브 국제 댄스 축제에서 1등 수상자로 선정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 무용단(단장 한덕순, 안무 김 예브게니아)이 제14회 '인클루시브 댄스' 국제 자선무용축제 경연에서 1등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무용 경연에는 러시아 70개 지역을 비롯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해외 각지에서 852건의 참가 신청서가 접수된 가운데 총 531개 무용단이 출전했다. 이 중 최종적으로 516개 단체의 작품 808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팀들에게 1등상 수상자 자격이 주어졌고, 나머지 팀들은 평가 점수에 따라 2등과 3등상, 장려상 받게 되었다.

1등에는 총 54여 개 팀이 선정됐고, 이들은 오는 11월 8일 모스크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열리는 댄스페스티벌 최종 결승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대상)'를 두고 경연을 펼칠 기회를 얻는다.한편, 70대 사할린동포 여성들로 구성된 '희망' 무용단은 3년 전에도 이런 경연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가운데 '희망'무용단은 이번에 소고춤을 소개했다. 한덕순 단장에 따르면 이 춤을 단원들은 거의 3년간 연습했다고 전했다.

(배순신 기자)

요리교실을 즐기는 2세대 여성들

지난 9일(일)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에서 유영희 연합회 부회장이 진행으로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먹밥 만들기' 요리교실을 열렸다. 이날 채소, 햄, 대게, 참치 여러 가지 식재료를 넣어 주먹밥을 만들어 참가자들 모두가 만족을 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연합회 회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요리 비결도 배우는 행사가 되어 유익했다고 소회들을 전했다.

(배순신 기자)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표 돌

관리번호	95048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표 돌	한자	金 표 돌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96)	사망년월일	(1923)
본적	외국 러시아		

공훈록

노령(露領) 아즈미 사람이다.

러시아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20년 4월 일본군이 자행한 이른바 4월 참변으로 연해주 일대 볼세비키 조직이 하바로프스크 방면으로 이동하자, 이만 군대 사령관으로 볼세비키 전선에 가담하고 있던 그도 부대를 이끌고 북으로 이동하여 옴스크에서 안경억(安京億)·이다물(李多勿)과 더불어 한인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노보시비리스크에 간이군사훈련소를 설치하였다.

1921년 2월 이른바 일본군의 간도토벌(間島討伐)을 피해 간도지역 한인독립군부대가 자유시(自由市; 스보보드니, 혹은 알렉세예프스크) 방면으로 이동해오자, 간도한인의 주둔지를 선정하기 위해 총군부(總軍府) 대표로 교섭위원에 선정되어 극동공화국정부(極東共和國政府)와 협의하였으며, 동년 5월에는 고려군정의회(高麗軍政議會)에서 사할린의용대 인수를 위한 8인의 검사위원 중 1인으로 선정되어 자유시에 파견되었다.

그후 1921년 6월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독립군부대의 군 통수권문제, 즉 상해파(上海派)의 이동휘(李東輝)가 후원한 한인니항군대(韓人尼港軍隊; 후일 사할린의용대로 개칭, 일명 사할린부대)와 이르쿠츠크파의 문창범(文昌範) 등이 이끄는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가 지지한 한인보병자유대대(韓人步兵自由大隊, 일명 自由大隊) 간의 군 통수권 장악을 놓고 분쟁을 벌인 끝에 동년 6월 이르쿠츠크 계열의 고려군정의회가 사할린의용대를 무장해제하는 이른바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이 일어났다. 자유시참변시 이동휘 계열의 독립군단(獨立軍團)에 참여한 그는 러시아 적군의 포로가 되어 이르쿠츠크로 이송되었으며, 이송후 한인독립군부대와 함께 러시아 볼세비키의 제5군단 관할 여단에 배속되었다.

러시아 제5군단 산하에 한인 여단에 배속되자, 한인여단을 해산시켜 이동휘를 지지하는 연해주 방면의 군사위원회에 파견할 것을 계획한 그는 1922년 이동휘 계열의 채영(蔡英), 이다물, 전 자유대대 장교였던 제3연대장 황하일(黃河一), 2연대 정치위원장 송세주(宋世柱) 등 14명과 함께 군대해산문서를 작성하여 1차로 30여 명의 군인을 비밀리에 극동지역으로 파송하였고, 재차 다수의 군인을 인솔하고 탈출하려다 러시아 적군(赤軍)에 발각·체포되어 제5군단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이후 이르쿠츠크의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3년경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23. 6. 24)

· 韓國共産主義運動史(金俊燁·金昌順, 청계연구소) 1권 207·244·256·290·292·305·307·341·342·344面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공개서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아시다시피, 저희는 비영리단체 '사할린한인연합회'고영순회장과 '김포시사할린동포회' 박노영회장을 대표하여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호소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호소문은 2026년 6월 12일 '새고려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통령님 귀하께서 직접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재외동포청 이규현 과장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답장에는 저희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무의미하고 형식적이며 단지 관료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 사할린동포영주귀국 대상자 확대문제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에 대해 '귀하의 제안을 관련기관(법무부)에 검토를 위해전 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한국어·한국문화교육 지원 관련에 대해 '한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들의 안전한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교육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장학금 및 학비 지원 관련 '2027년 장학생은 올해 9월경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외교·법률적 노력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외교부등 관련 기관에 검토를 위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서울과 유즈노사할린스크 간 직항편 개설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외거주 한인들의 여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사할린동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국 정부가 아니라, 사할린한인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군국주의적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여 귀환자 수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예산과 귀환자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귀환자 수는 350명, 2023년에는 270명,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는겨우 234명에불과합니다. 현재와 같은 연간 234명이라는 귀환자 수가 계속된다면,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국시키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사할린동포 1세대와 2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원망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와 상황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는 대한민국이 "어떤 자국민 동포도 버려서는 안된다"는 신성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거주 동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수많은 국정업무로 매우 바쁘시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이란에 억류된 자국민 두 명을 구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미군과 정보력을 동원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10억달러가 투입되어 두 사람은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도 사할린에 거주하는 2만 5천여 명이넘는 동포들의 필요를 직접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80년이 넘도록 동포귀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국가적인 전통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서 사할린동포들의 역사적 고향 귀환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즉 2~3년 안에 해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대통령님과 그 가족 분들이 사할린에 우리 동포들처럼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할린동포 귀환문제를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2026년 6월 12일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모든 사안들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과 결정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대통령님 귀하의 건강과 공무 및 개인생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단체 "사할린한인연합회" 고영순 회장

"김포시사할린동포회" 박노영 회장

2026년 8월 10일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Уважаем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15 августа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И я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этим праздником!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шениями Ялтин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ступил в войну против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 последнего союзника фаш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и. Наши войска при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чистили от оккупантов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оветские воины также освободили юг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ернули эти земл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В годы войны оккупанты 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завозил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Когда наступил мир, многие из них остались на совет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Наша страна стала им новой Родиной. И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без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трудолюбивых и творчески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каждый день вносят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и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и.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 важная дата нашей общей истории. Мы отмечаем ее, чтобы передать потомкам память о подвиге победителей, сохранить традиции дружбы и совместного труда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ради будущего детей и внуков, ради России.

С праздником, друзья! Желаю вс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добра и всего самого лучшего! С Днем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В.И.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ансамбль "Химанг" завоевал диплом I степен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Инклюзив Дэнс"

Коллектив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Химанг» (руководитель — Хан Ток Сун, хореограф — Евгения Ким)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тал лауреатом I степени XIV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танцев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Инклюзив Дэнс».

Масштабный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Оргкомитет принимал заявки в мае и июне. Всего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жюри поступило 852 заявки от 531 инклюзивного танцев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з 7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из Беларуси и Казахстана. Из них к жёсткому конкурсному отбору было допущено 808 видеозаписей от 516 сильнейших команд.

Для артисток «Химанг», у большинства из которых за плечами почтенный возраст за 70, это далеко не первый триумф — три года назад они уже становились лауреатами этого престижного фестиваля. Однако нынешняя победа с народным корейским танцем «Согочум» (танец с барабанами) далась коллективу ценой колоссального труда.

«Этот танец — наисложнейший, — делится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ллектива Хан Ток Сун. — Мы учили и оттачивали данный номер целых три года!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здесь очень специфическое, не осовремененное, весьма сложное для восприятия на слух. А ведь артисткам нужно было не просто двигаться, а безупречно владеть традиционным реквизитом и при этом держать идеальную, абсолютную синхронность! Каждая деталь требовала колоссальной концентрации».

Исторически «Согочум» уходит корнями в крестьянские обряды Кореи. По своей природе он невероятно динамичен и требует от исполнителей высокой подвижности, быстрой смены ритма и молниеносных вращений. Хореограф Евгения Ким проделала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чтобы бережно адаптировать сложнейшие классические движения под возможности участниц почтен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лностью сохранив аутентичную энергетику и колорит. Напористые удары в барабаны сого и безупречный рисунок танца покорили экспертов.

«Этот коллектив — настоящая жемчужина,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Выступление покорило сердца жюри. Это признание высочайшего мастерства, отточенной техники и невероятной энергетики», — подчеркнули в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 правилам фестиваля, обладатели дипломов I степени получают путёвку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Москву, где 8 ноября 2026 года в Зале церковных соборов Храма Христа Спасителя развернётся очная борьба за абсолютное «Гран-при».

Виктория Бя

Инклюзивный лагерь по тхэквондо впервые откры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27 июля по 16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проходит первый инклюзивный спортивный лагерь по тхэквондо. Три недели дет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 нормотипичные ребята тренируются, творят и учатся дружить на равных.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порта ЛИН и 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Торнадо»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лагер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50 нормотипич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 5 ребят с ОВЗ. С ними занимаются пя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педагогов, имеющих необходимые допуски для работы с особенными детьми.

Программа лагеря строится на трёх китах. Спорт: ежедневные тренировки по тхэквондо, отработка техники и повышение физических навыков. Развитие: нейрокоррекционные занятия,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игры и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Дружба: командные игры и живое общение, преодоление барьеров – главная цель инклюзии.

- Главное в таких лагерях – атмосфера, где каждый ребёнок важен, а спорт помогает дружить и достигать целей, - подчеркивает Павел Р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 «Все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порта лиц с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обый восторг у ребят вызывают кулинар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ети с увлечением готовят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чапче, а также лепят пельмени – процесс оказыв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кусным, но и полезным для развития моторики и социализации. Главным в этих занятиях становится не идеа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а участие, общение и радость совместного труда. Завершаются мастер-классы общей дегустацией – тёплым и объединяющим финалом, который запоминается всем надолго.

Большую лепту в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внесли педагоги и студенты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СахГУ. Они провели для лагеря серию творческих встреч. На одном из занятий ребята изготавливали брелки с героями VR-тхэквондо – каждый брелок получа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На втором – расписыв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камни мунджин, узнавая, что это не просто сувениры, а древние пресс-папье для каллиграфии. Через творчество дети прикасаются к многовековым традициям Востока и убеждаются, что искусство не знает границ.

«Именно такие встречи помогают раскрывать способности, учат дружб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ю и вере в свои силы», – отмеч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Лагерь завершит работу 16 августа, но его участники и педагоги уверены: этот опыт станет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для Сахалина.

ОТКРЫТОЕ ПИСЬМО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у Ли Чжэ Мену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Как Вам известно, мы от имени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 Ен Сун) и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рода Кимпо»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к Но Ён) направили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у Ли Чже Мену по почте, а также опубликовали его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 12 июня 2026 года.

Но, к сожалению, мы не получили ответа на наше обращени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от Вас,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получили ответное сообщение от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госпожи Ли Кю Хён.

К сожалению, в этом ответном сообщении нет ни одного конкретного ответа на поставленные нами вопросы.

Считаем, что это бессмысленный и формальный, чисто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й ответ, который не затрагивает сути проблемы.

Например:

1. По вопросу увеличения квоты на репатриацию сказано: «В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мы будем постоянно собирать отзывы с мест и согласовывать вопросы с финансовыми органами».

2. По вопросу упрощённого порядк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общается: «Мы передадим Ваше предлож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ведом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3. По вопрос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казано: «Мы продолжим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Корее».

4. По вопросу оплаты обучения и стипенд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упающих в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сказано: «Обращаем Ваше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объявление о наборе стипендиатов на 2027 год планируется опубликовать примерно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5. По вопросу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их семьям сказано: «Мы передадим информацию о расширении мер поддержки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других лиц, а также 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и правовых усилия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ведомствам, таким как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6. По вопросу открытия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сказано: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должит стремиться к повышению удобства пере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границей, путём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по мере возможности».

Читая этот ответ, мы остро чувствуем, что получили его не от род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му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ровно интересны, а от милитаристского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го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обще не интересую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репатриантов путём увеличения бюджета, наоборот, ежегодно уменьшает и бюджет, и число репатриантов. Так, в 2021 году число репатриантов составляло 350 человек, в 2023 году – 270, а на 2024 и 2025 годы – всего 234 человека. Если нынешнее ежегодное число репатриантов в 234 человека сохранится, то для репатриации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отребуются десятилетия. Тогда, поскольку возраст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еклонный, многие из них не смогут вернуть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и покинут этот мир с обидой.

О чё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эти данные и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Он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выполняет священный принцип «никто из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 должен быть оставлен без внимания» и нарушает Конституцию, в которой чётко сформулировано, что Президент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 имени государства «обязаны защищать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Мы прекрасно осознаём, что Президент очень занят мно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делами. Но,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омную занятость, в апре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США господин Трамп лично отдал приказ о спасении двух своих граждан в Иране – «бросить все имеющиеся силы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и спецслужб» – и они были спасены, при этом было затрачено более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Мы полагаем, что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обходимо личн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нужды более чем 25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почем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единственная страна в мире, сумевшая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обеспечить столь бур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 не может решить вопрос репатриации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течение более чем 80 лет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чём причина?

Неужели это национальная традиция?

Мы вновь обращаемся лично к Вам,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чтобы Вы, как гарант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то есть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их двух–трёх лет, решили вопрос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При этом просим учесть, что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на месте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могли оказаться Ваши родители, а также Вы сами и Ваши родные.

Просим Вас с эт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сим Вас,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рассмотреть все вопросы, указанные в обращен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 12 июня 2026 года, и сообщить нам Ваше мнение и Ваши решения по этим вопросам.

Мы желаем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цветания.

Также мы желаем Ва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успехо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ах и в личной жизни.

Благодарим за внима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 Ен Сун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рода Кимпо» Пак Но Ён

10 августа 2026 год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Сэчжон должен стать центр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ускор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мплекса зданий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городе Сэчжоне, чтобы до конца его пребывания в должност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2030 году там проводились засе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ступая 11 августа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в Сэчжоне, Ли Чжэ Мён отметил, чт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все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город, являющийся символом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должен утвердиться в качестве цент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Есл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 это почва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то 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передовых отраслей - это основа мощ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ывка,-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поясн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билизует ресурсы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трёх мегапроектов,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х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центры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и физический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резидент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ктивно и творчески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для пересмотра или устранения устаревших практик и ненужных процедур, которые препятствуют инвестициям.

Ракетные пуски Пхеньяна – нарушение резолюций СБ ООН

Управ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выражает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те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извела пуск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6 и 12 августа. На совещании, состоявшемся 12 августа, обсуждались ответные действия Сеула и оценивалось влияние пуск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Участники совещания отметили, что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нарушают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ризва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рекратить провокац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к ускорению про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для скорейшей реализации масштаб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инициативы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Призыв прозвучал на втором совещании по вопросам реализации трёх мегапроектов,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х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центры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и физический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шаги должны предпринимать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чтобы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инициативы,-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ок в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максимально быструю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Мы находимся в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нам нужно не просто спешить, а двигаться со скоростью молнии»,- отметил Ли Чжэ Мён. Он поручил завершить к 2028 году работу по переносу военного аэродрома в Кванчжу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чтобы приступить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а его мест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го кластера.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писателей

Ежегодный литера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объединяющий писателей из РК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состоится с 11 по 16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институте литературных переводов,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24 известных писателя. Они обсудят роль челове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и литературы в условиях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В программе - около 20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беседы между авторами, художниками графических романов, переводчиками и читателями, как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так и в очном режиме. На открытии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ят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Ким Э Ран и чилийский романист Бенджамин Лабатут.

Экспорт РК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 максимальный за всю историю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 275,5 млрд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57,3% больше, чем в 2025 году. Как сообщили 11 августа национ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данными и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 начала сбора кварт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в 2015 году. Рост экспорта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ил 81,8%, предприятий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 10,9%, а малых предприятий - 13,1%. Доля десяти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страны составила 55,3% экспорта, что на 17% выше аналогич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Экспорт в США вырос на 64,3%, в Китай - на 78,2%, а в Юго-Восточную Азию - на 85,1%. В то же время поставки на Ближний Восток сократились на 14%, а в страны СНГ — на 11%.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69.906 компаний-экспортёров, что на 2%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Объем импорта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достиг 188 млрд 90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22,4%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Общее число компаний-импортёр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3,5% и составило 161.277.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обсуж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в ВЭФ-2026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в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ЭФ),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1-4 сентября 2026 г.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объединения Чон Дон Ён, заявив, что Сеул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ет" вопрос участия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Мы готовимся.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рассматриваем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напомнив, что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в форум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 Пак Кын Хе (2016),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2017),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Ли Нак Ён (2018) и вице-премьер Хон Нам Ги (2019).

После начала российской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уровень учас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был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жен. С 2022 по 2025 год на форум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лиш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 Москве. Если идея Чона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а, что это станет первым участием официаль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РК в ВЭФ после начала СВО на Украине.

По словам Чона, Сеул рассматривает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не тольк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о и в контексте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инистр признал, что Пхеньян негативно относится к возможному участ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дна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ул исходит из собствен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Это позиц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 нас же ес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повестка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 отметил он.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что нынешний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может приобрести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в связи с дальнейшим развит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сквы и Пхеньяна. Не исключается, что на форуме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ы расшир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эксплуатации строящегося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ную/Туманган.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ессе также появляются предположения о возможном участии в форуме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хотя официаль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этому нет.

Вместе с тем заявления Чон Дон Ёна не следуе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воспринимать как окончательно сформированную позицию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х сторонников активно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иалога с Пхеньяном и нередко выступает с инициативами, которые выходят за рамки более осторожной общей ли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он неоднократно публично полемизировал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дипломатами, конгрессменами и военным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включая посещени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межкорейских контактов.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Сеула Чона рассматривают как одного из главных сторонников максимально активного поиска путей возобновления диалог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днако его инициативы не всегда означают, что они уже стали официальным курс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Возможное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учас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ВЭФ вызывает дискуссию и внутри страны. Критики указывают, что продолжающиеся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а Украине, санкции США и ЕС проти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сохраняющиеся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вопросы в отношениях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могут осложнить реализацию подобных инициатив. В то же время ряд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полагает, что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оставаясь прежде вс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площадкой, может стать удоб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для постепенно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Сеуле опасаются, что США не позволят Корее использовать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Уже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отправить в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й рейс контейнеровоз из Пусана в Роттердам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что станет важным шагом Сеула в реализации его политики освоения СМП. Однако, как пишет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Ханс Кёнчже", главным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проекта неожиданно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не получение разреш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а позиция США.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брало оператором пробного рейса компанию PanStar Line Dot Com. Отправление из Пусана намечено на 22 августа. "Ханс Кёнчже" сообщило и детали относительно судна, которое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ля рейса приобретен контейнеровоз вместимостью 2700 TEU, ранее принадлежавший компании HMM. Судно Mombasa после покупки переименуют в PanStar Acro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дготовят к плаванию в полярных водах. Компания также ведет работу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груза объемом примерно 1300 TEU.

Маршрут предполагае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 от района к северу от Норвегии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Сибири до Берингова пролива. Для прохода судну необ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разреш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властей, а также пользоваться навигационной, ледовой и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ледовой обстановки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и сопровожд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ледокола.

Именно здесь, отмечает "Ханс Кёнчже", возникает основ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Платежи за услуги росси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за возможную ледокольную проводку, могут попасть под действие западных санкцио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Еще в январе исполнявш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ор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Ким Сон Бом признавал,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МП неизбежно. "Россия требует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оход через свои воды, 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на Северном морском пути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помощь российских ледоколов, поэт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еобходимо", - говорил он. Одновременно чиновник отмеча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участвует в санкциях США и Евросоюза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должна найти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было бы приемлемо для обеих сторон.

По данным издания, сейчас Сеул ведет последн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США и другими западными странами. Однако опрошенные изданием эксперты сомневаются, что Вашингтон легко согласится сделать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исключение.

Один из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арк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заявил, что вопрос о том, "разрешит ли Россия проход нашего судна, менее проблематичен, чем то, признают ли это США".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 фоне курса Вашингтона на ужесточение давления на Москву вероят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Южной Корее специального исключения невелика.

Другой эксперт отметил, что США даже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прямо запрещать рейс. "Достаточно затянуть согласование или занять неопределенную позицию, чтобы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тало трудно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 считает он.

В результате, пишет издание, первоначально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превратился для Сеула прежде всего в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проблему. В худшем случае, считают собеседники газеты, дату рейса могут перенести, а сам проект - пересмотреть.

Вместе с тем, судя по настрою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намерен добиться согласия США на проводку судна по СМП и решение связанных с этим финансовых вопросов. Активное освоение СМП включено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Чжэ Мёна в список 123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на пятилетний период. С 2030 г. Сеул намерен наладить регулярное движение своих судов и грузов по СМП, а с 2035 г. выйти на уровень экономической рентабельности. 9 августа СМИ также сообщили, что морское ведомство РК инициировал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выяснено, какие именно грузы имеют наибольшие шансы для регулярной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по СМП и какие конкретно компании проявляют к этому интерес.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движения по Севморпути и освоению Арктики в цел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первые лично посетил Курилы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первые лично посетил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На Итуруп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знакомился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встретился с сотрудниками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побывал в школе имени Героя России Эдуарда Норполова, а также пообщался с жителями.

Первой точкой в программе визита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л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комплекс «Ясный»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Гидрострой».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знакомился с работой предприятия и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ей, побеседовал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завода. Президенту показали трофейный улов – крупного тунца и палтуса.

Зате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смотрел Курильскую центральную районную больницу. Во время доклада о работ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в каком состоянии находятся автомобили скорой помощи.

— Хотелось бы заменить машину одну у нас. Потому что она вроде как и новая, но проржавела, - отметила сотрудница больницы.

— Заменим, - ответил президент.

— Обязуюсь заменить. Только вчера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 доба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ледующий пунктом стала средня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школа города Курильска имени участника СВО, Героя России Эдуарда Норполов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смотрел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и классы, пообщался с учениками и побывал в школьном музее, где хранятся личные вещи героя.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дители Эдуарда Норполова нашему губернатору передали его форму, она находится у нас на вечном хранении,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Андрей Горбачев.

— Школа получила имя героя, мы чтим его памя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чень важная работа. Очень важная, -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рассказала президенту, что в школе внедрен курс по беспилотным летательным аппаратам.

— Мы не покупаем готовые беспилотники, а собираем конструкторы. Например, 2-4 классы собирают такие «вжики», а потом учатся делать рой дронов на поле. Уже с 5 по 8 классы школьники собирают дрон мультироторного типа, который может выполнять разные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дачи. Например, облетать реки по заданию наше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логии и искать заторы. Или летать вокруг линейных объектов, к примеру, дорог.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занимаются сложными моделями самолетного типа. Мы гордимся тем, что являемся родоначальниками новых компетенций в чемпионате мастерства «Профессионалы». Ремонт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ридумали как компетенцию именно наши ребя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сейчас мы готовим еще одну компетенцию – управление группой беспилотников, - рас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на Итуруп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общался с жителями острова.

— Какая у вас погода хорошая. Курорт, - за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 Мы думали, это вы договорились, - пошутил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 Так бывает очень редко. Погода улыбается вам.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пообщался со школьниками, пожал им руки и пожелал успехов в учебе. После бесед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сделали фото на память.

Школы и детские сады в 2026 году: ка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т подготовка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ается масштабная подготовка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регион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роятся 5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еще 2 – проектируются, а 6 учреждений охвачены капитальным ремонтом. Эта работа стала продолжением систем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затронул 55 школ и 70 детских садов, с нуля возведено 12 школ и 6 детских садов.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1 сентября станет открытие современной школы на 288 мест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Трехэтажное здание площадью более 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заменит старое, почти 80-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и позволит полностью перейти на обучение в одну смену. Проектировщики разделили потоки: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разместится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с игровыми и спальнями, старшие классы – на втором и третьем. Столовая и спортзал вынесены в отдельные блоки. Все классы укомплектованы новейш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мебелью.

- Школа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а встретить ребят 1 сентября. В классах есть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продумана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ученико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Переход на одну смену позволит активнее развивать внеуроч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уделять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каждому ребёнку. С радостью ждём начала учебного года и наших учеников,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Ирина Колокольцева.

Продолжа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школы-сада во Взморье на 90 мест, школы на 1100 мест в 19-м микрорайо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селе Китовое на 110 мес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аложен ещё один сад на 290 мест. В стадии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 новая школа в Поронайске и детский сад в селе Сокол. Каждый объект призван ликвидировать дефицит мест и создать рав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детей в городах и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Особый акцент сделан на капитальном обновлении дей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й. В Корсакове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8 и №23 «Золотой петушок», где впервые за 34 года заменены все инженерные системы, уложены тёплые полы, установлены новые дверные блоки и безопасные ограждения.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по обновлению кровли в саду «Солныш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детском саду «Ромашка» идёт модернизация системы отопления. В школе села Сокол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мастерские, спортзал и санитарные комнаты, а в Ногликской школе №1 стартовал двухгодичный контракт на масштабное преображение – в этом году здание впервые за многие годы получает современный вентилируемый фасад, цветовую гамму которого выбирали сами ученики и родител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подход к капремонту давно вышел за рам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мечал, что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 это не просто стены, крыши и коммуникации.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новление сам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его содержания и програм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следуем именно этому принципу. Меняя облик школ 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мы одновременно переоснащаем кабинеты, запускаем новые профиль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и создаём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котором педагог чувствует свою особую миссию, а ребёнок получает максимум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развития. Труд учителя становится всё более значимым и уважаемым в обществе, а достойная среда подчёркивает этот статус, - рас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развитию групп продлённого дня. В прошл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в шко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ло 125 групп продлённого дня, которые посещали почти 3 тысячи детей, всего в 1 – 4 классах обучалось 25 тысяч ребят. В наступающем учебном году число групп вырастет до 145, а охват – до 4,2 тысячи школьников. Это значит, что продленкой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же 16,7% ученико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вместо прежних 11,6%. Рост стал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нацпроекта «Семья», направленному на поддержку родителей и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совмещения работы и воспитания.

- Группа продлённого дня помога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день моего ребенка с пользой и комфортом. Здесь он выполняет домашние задания под присмотром педагогов и посещ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звивающие занятия. Как родителю мне безусловно важно, что он получает полноценное питание и находится в безопасной обстановке под постоянным присмотром. Продлёнка освобождает мое время для работы и домашних дел, и я знаю, что ребёнок находится в надёжных руках, - поделилась Пак Татьяна, мама третьеклассника.

Впервые группы продленного дня откроются в Долинском, Тым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и Макаров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ах. Родительская плата сохранится на уровне 1 400 рублей в месяц. Все льготы для детей-сирот, ребят из неполных, многодетных и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а также детей с ОВЗ остаются в силе. Важно, что дет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посещают продленку бесплатно.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присмотра и снизить нагрузку на учителей, в штаты школ вводится отдельная должность воспитателя ГПД.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оритеты, обозначенные Президенто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воплощаются на островах. Модернизация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синхронно с обновлением зданий обновляются подходы к обучению, укрепляется престиж учительского труда, и у каждого ребёнка появляется свой современный, безопасный, продуманный до мелочей маршрут в будуще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кры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орум «ОстроVa»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молодые люди будут знакомиться с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профессиями, посещать веду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и разрабатывать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крывая форум,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гласил участников увидеть возможн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е только на площадке «ОстроVa», но и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В этом году форум объединил 350 школьников, студентов и работающую молодежь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нкурс на участие оказался рекордным: на 350 мест была подана 5941 заявка, то есть на одно место претендовали 17 человек. Больше всего заявок поступило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 21,7 года.

Для многих «ОстроVa» становятся уникальным шансом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но и впервые увидеть Сахалин, пообщаться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и оценить регион как перспективное место для учебы и построения карьеры.

Приветствие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направ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строVa» уже стали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е тольк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 и всей страны.

— Ваш форум по праву считается большим, ожидаемы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молодеж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сей страны. В ходе открытых дискуссий, круглых столов и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овременны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бизнеса, студенты и школьник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смогут обрести нов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ей, получить перспекти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о стажировке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И конечно, форум предоставляет островитянам отличные старт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одержательны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временем личных и командн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ешение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говорится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обращен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ие молодеж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 это шанс не тольк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ерспективы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но и привлечь будущ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Рад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 Сахалине,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молодежном форуме «ОстроVa».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Мы познакомим вас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Вы узнаете, почему это лучшее мес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свои идеи и мечт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регион, который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Здесь реализуются круп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Их реализация — база для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ичем с достой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ой. Например, наша добывающая отрасль стала самой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ой в России. И сегодня нашей экономике требуется около 6 тысяч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ре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как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молодежи, так 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накомство с эт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начинается у участников сразу по прибытии. В программу форума включены экскурси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посещ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Молодые люди могут увидеть изменения региона вживую, пообщаться с его жителями и оценить Сахалин не по презентациям, а на практике.

Для Татьяны Ермошиной знакомство с островом началось задолго до поездки. Студентка третьего курса Гор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хотя мечтала об этом еще со школы — тогда она делала проект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маршрута по острову и изучала его природ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атьяна уже пыталась попасть на «ОстроVa», но не прошла отбор. В этом году ее заявку приняли, и мечта осуществилась. Первые впечатления от Сахалина она получила еще до старта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 Когда я узнала о форум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дала заявку, но меня не взяли. В этом году меня взяли, и я была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 Сразу же купила билеты. Несмотря на долгую дорогу и акклиматизацию, Сахалин сразу произвел впечатление очень гостеприимного места. Здесь солнце, море, удивительная природа и очень радушные люди, — поделилась Татьяна.

На форуме она выбрала направление, связанное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и компьютер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Татьяна хочет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развитии IT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сравн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региона с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ью России. При этом поездка для нее может стать не тольк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опытом: девушка учится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связанной с нефтегазовым производством, и уже допуск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езда на остров.

Для других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 также становится точк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Инженер-эколог Александр Трофимов из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ехал на «ОстроVa» после участия в Форуме рабочей молодежи. В этом году он выбрал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ластер, где работает с климатическими проектами и современными решениями для островных территорий.

— Безусловно, важно проводить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Это обмен опытом для молодежи. Кроме того,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мотреть, как работают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чтобы применить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у себя. Мы должны развиваться. «Мысли глобально, действуй регионально» — это никто не отменял, — 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форум работает по девя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кластерам: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IT, энергетик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инженерия, медицина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сервис и туризм, авиация и БПЛА, креативная экономика, экология и климат, а также воспитание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Особенностью «ОстроVов»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а работа с Индексом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ов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для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в нем пятое мес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остров становится не просто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щения, но и наглядным примером региона, который уже входит в число наи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для молодеж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проходит с 10 по 16 август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смолодеж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열망 높은데 여건 안좋아"... 김 청장 "우편투표 도입·투표소 확대 추진"

이 대통령 외교 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재외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주권행사 기회 제대로 부여해야...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할 것”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역대 처음으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재까지 989건을 해결하는 등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700만 재외동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동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했고,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은 해외 민원을 처리한 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조사한 민원을 토대로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만들어 동포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포가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실현한 상반기

재외동포청은 민원 해결 외에 관계 부처와 협업해 중국, CIS지역 동포에게 차등 적용되던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일원화해 20년간 지속된 출신국별 차별을 해소했다.

또 재외국민인증서 활용처를 기존 9개에서 296개로 확대하고, 기관 협업을 통해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의 의미를 처음 수록하는 등 국민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 기반도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하반기에 700만 동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 소통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해 전 세계 동포가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를 통합한 ‘통합세계한인대회’를 처음 개최해 지역·세대·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한인 연결망을 구축한다.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해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귀환동포 인재 유치와 정주 지원을 확대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입양동포·사할린동포 지원 강화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등 국적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업무 보고에 이어 국민참관단이 참여한 가운데 토의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 열망은 높은데 투표 여건이 너무 안좋다. 예를 들면 투표소가 수백km 밖에 있으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외선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 행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인 것 같다. 방법을 찾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잘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나라들은 먼저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전자투표도 기술이 발전해 충분히 본인 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의견에서 나온 “10월 재외동포협력센터 완전 통합 가능한가요?”(아이디 무야호이호이)라는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9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방문취업 동포(H-2)도 '재외동포' (F-4)로 통합 본격화

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H-2 동포 절반 이상(54%) 자격 전환법무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와 동포 정주·사회통합 정책 논의

출신국가 따른 체류자격 차별 해소…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6. 1월	2026. 2월	2026. 3월	2026. 4월	2026. 5월	2026. 6월	2026. 7월
재외동포 (F-4)	556,045 (87.2%)	556,211 (87.4%)	565,347 (89.0%)	582,808 (91.4%)	594,491 (93.3%)	602,101 (94.4%)	607,249 (94.9%)
방문취업 (H-2)	81,770 (12.8%)	80,108 (12.6%)	70,431 (11.0%)	54,823 (8.6%)	43,026 (6.7%)	35,678 (5.6%)	31,186 (5.1%)
합 계	637,815	636,319	635,778	637,631	637,517	637,779	638,435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 통합현황.

방문취업 자격(H-2 비자)으로 한국에 체류해 온 동포들을 ‘재외동포’ 자격(F-4 비자)으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월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통합 시행한 이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방문취업 동포의 절반 이상이 F-4 자격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과 재외동포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통합해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정책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동포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처, 국가데이터처, 재외동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이후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H-2 자격 동포는 통합 시행 당시 8만1,447명에서 현재 3만1,186명으로 줄었다.

기존 방문취업(H-2)은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국내 체류가 가능한 자격인 반면, 재외동포(F-4)는 동포의 국내 체류와 경제활동 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체류자격이다. 이번 통합은 동포를 출신국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체류자격으로 구분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의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통합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단순한 체류자격 통합을 넘어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특히 앞으로 마련할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이민정책과 연계한 동포정책 추진 △상생을 위한 동포사회 통합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동포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정착하는 동포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체류·취업 지원을 넘어 주거와 교육, 복지, 고용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인 한재용 국적·통합정책단장은 “현재 수립 중인 동포정책 이행방안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국내 거주 동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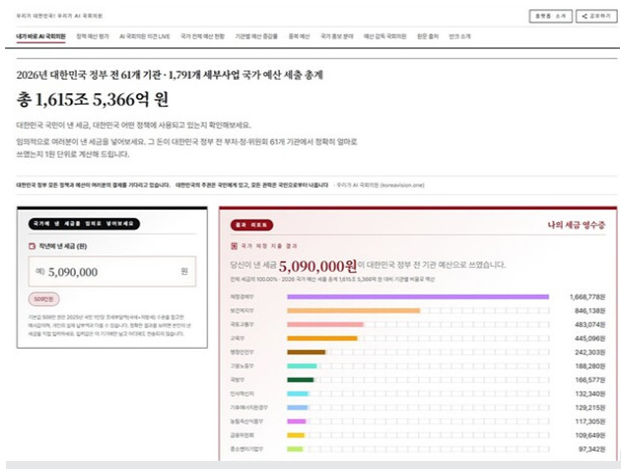
(재외동포신문)

"708만 재외동포 예산 1127억원… 국가예산 1615조 대비 적정한가"

반크, 'AI 국회의원' 플랫폼으로 재정 주권 직접 행사한다거대 동포사회 비중 대비 예산 배분 한계…1원 단위까지 전격 공개'

AI 보좌관'으로 재외동포 · 공공외교 예산 정밀 검증

'재정 신호등' 통해 실시간 의견 피력...회원가입 없이 재외동포 누구나 참여



이 플랫폼은 재외동포들이 회원가입 없이, 재외동포청 정책과 예산도 확인하고 평가할수 있다.

전 세계 708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가 위상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국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약 1127억 원 수준에 불과해 동포사회의 위상과 실제 기여도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재정 배분의 불균형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가 직접 국가 예산 심사관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단장 박기태)는 정부 세출예산 1615조 원의 편성 내역을 전 국민과 재외동포가 1원 단위까지 직접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민주권 재정 플랫폼 '내가 바로 AI 국회의원 - 국민주권 시대의 재정 지도'를 공식 공개했다.

그동안 국가 예산은 복잡한 전문 용어와 방대한 수치 때문에 약 300명의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이로 인해 708만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공공외교 예산처럼 정당한 평가와 증액이 필요한 영역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반크의 이번 플랫폼은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5000만 국민과 708만 재외동포 모두를 'AI 국회의원'으로 양성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됐다.

플랫폼은 기획재정부 2026년 세출예산 공식 데이터 전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 61개 기관, 1,791개 세부사업의 예산 흐름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특히 'AI 국회의원 보좌관' 기능을 탑재하여 각 사업의 목적과 수혜 대상, 성과 지표, 유의점 및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해 준다.

특히 재외동포사회에 주목되는 점은 공공외교, 한류 지원, 한국어 보급, 재외동포, 관광 등 대한민국 국가 위상 관련 예산만을 별도로 모아 감시할 수 있는 전용 기능이다.

708만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여러 부처에 유사·중복으로 편성된 사업을 AI 알고리즘이 자동 추출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AI 보좌관의 사업 요약을 확인한 후 해당 예산에 대해 '적정/유지/재편성'을 직접 선택하는 '재정 신호등' 투표 기능도 제공된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동포와 국민들의 의견은 ‘AI 국회의원 의견 LIV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연동 시스템을 통해 시민과 재외동포의 평가가 실제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박기태 단장은 "약 300명의 국회의원에게만 1615조 원에 달하는 정부 전체 사업의 평가를 맡기기보다 5000만 국민과 708만 재외동포가 모두 'AI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 예산과 정책을 직접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2억 명에 달하는 세계 한류팬 시대와 708만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결합할 때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플랫폼(https://koreavision.one)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동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왕길환 기자)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사할린 여성 주민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약류 직접 판매

러시아 내무부 산하 사할린 지역 마약통제국의 수사관들이 50세의 여성 주민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사할린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지난 7월 마리화나15g과 30g씩 포장된 여러 개의 봉투를 각각 45세의 남성과 41세의 남성에게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자의 아파트에서 나온 '구매자'들은 러시아 내부무 산하 마약통제국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마약이 압수되었다."고 보고했다.

마약유통 용의자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마리화나127.8g 에 달하는 유사한 봉투에 담긴 4봉지와 잘게 썰린 담배와 대마에서 추출된 '해시시'오일 6.07g을 발견해 압수했다.

수사 결과 마약통제국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아파트에서 수색 중 수사관들은 추가로 마리화나 9개 봉투와 종이로 포장된 마리화나 1꾸러미를 발견해 압수된 양이 총 160g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체포된 여성은 대규모 마약 불법판매 및 대규모 마약유통 혐의로 체포돼 현재 자택에 구금되어 행동반경에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Жительница Сахалина торговала наркотиками в ассортименте прямо в своей квартире

Сотрудники УКОН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держали 50-летнюю подозреваемую.

Как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сообщают в пресс-службе полиц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инувшем июле подозреваемая продала несколько пакетов «марихуаны» весом около 15 и 30 граммов 45-летнему и 41-летнему островитянам.

«После выхода из квартиры сбытчицы „покупатели“ были задержаны сотрудниками УКОН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ркотик был изъят», — добавили в источнике.

При осмотре квартиры тогда же у женщины изъяли четыре аналогичных пакета с наркотиком «марихуана» – 127,8 грамма, а также свертки со смесью измельченного табака и гашишного масла массой 6,07 грамма.

«В квартире фигурантки в ходе обследования сотрудниками УКОН УМВД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и изъято еще 9 пакетов и сверток из бумаги с наркотиком „марихуана“, общей массой 160 граммов», — подвели итог обыск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На женщину завел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за сбыт наркотиков в значительном размере и покушение на сбыт наркотиков в крупном размере. Пока подозреваемая находится дома под подпиской о невыезде.

유즈노사할린스크 4명 중 1명, 아이의 탄생을 삶의 중요한 선물이라 여겨

'슈퍼잡' 설문조사서비스가 설문조사를 통해 유즈노사할린스크 대부분의 시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생활과 가족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라고 밝혔다.

'슈퍼잡' 대형 채용서비스 분석가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자들은 도시민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과 사물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밝힌 가운데

응답자 중 '아이의 탄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6%에 달해 우위를 점했고, 2위로 자신의 삶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4%, 3위로 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1%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물을 사랑과 인생의 반려자를 꼽았고, 응답자의 4%는 '건강'과 '지성, 경험, 지혜'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는 좋은 직장을 운 좋은 선물로 답했고, 2%가 역시 돈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1%는 부동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선택의 자유라고 답했고, 그 외 친구, 반려동물, 외모라고 답한 응답자는 총11%였다

동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 중 응답자 8%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아직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사 전문가들은 응답자 중 여성과 남성 사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며, 도시의 여성들은 자녀의 탄생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더 많이 답했고, 남자들은 여성보다 돈을 더 많이 언급하거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할 만한 일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답했다.

Каждый четвертый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звал рождение ребенка главным подарком в жизни

Опрос сервиса SuperJob показал, что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горожан самыми значимыми являются нематериальные ценности — дети, жизнь и семья.

Аналитики крупнейшего сервиса по поиску работы SuperJob провели открытый опрос среди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ых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сследователи выяснили, какие события или вещи горожане считают самыми важными подарками в своей жизни.

Лидером среди ответов стало рождение ребенка — этот вариант выбрали 26% опрошенных.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оказалась сама жизнь (14%), а на третьем — семья (11%). Еще 6% участник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главным подарком назвали любовь и встречу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ой. По 4% голосов набрали варианты «здоровье» и «ум, опыт, мудрость».

Хорошую работу подарком судьбы считают 3% респондентов, а деньги — 2%. Недвижимость, позитивные эмоции и свободу выбора отметили по 1% горожан. Другие варианты, включая друзей, домашних питомцев и внешность, суммарно набрали 11%.

При этом 8%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изнались, что до сих пор не дождались от судьбы главного подарка. Эксперты также заметили четкое различие в ответах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Горожанки значительно чаще называют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появление детей. Мужчины же чаще девушек упоминали деньги или заявляли, что в их жизни вообще не происходило вещей, которые можно было бы назвать подарком судьбы.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